

우리나라 工業化過程의 分析

黃 炳 駿
(서울大學校 · 商科大學 · 教授)

차 례

I. 工業의 成長 및 構造

1. 1920年~1943年
2. 1953年~1966年

II. 工業化 過程

1. 工業化의 進展
2. 工業化의 段階

I. 工業의 成長 및 構造

1. 1920~1943年

(1) 工業成長의 推移

第1表와 같이 우리나라 工業은 1920年代를 통하여 年平均 10.4%, 그리고 1930年代에 있어서는 年平均 13.5%의 높은 成長率을 달성하였다. 실제로 있어 1921年을 起點으로 하여 1943년에 이르는 약 20年間に 工業生産額은 6倍 이상으로 늘어 났었다. 이는 農業을 비롯한 他産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成長「템포」였다. 따라서 第2表와 같이 工業이 全體産業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漸增하였다. 1911년에는 그 比率이 10.8%에 불과하였으나 1943년에는 37.0%에 달함으로써 工業化過程이 촉진되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解放前의 數値는 南·北韓을 합친 것임에 留意하여야 한다.)

〈第1表〉

工業生産의 增加와 成長推移

年 度	生 産 額 (經常價格)	生 産 額① (1920年不變價格)	成 長 率	指 數
	(千圓)	(千圓)	%	
1921	200,536	265,962	30.1	100.0
22	223,343	297,776	11.9	112.0
23	233,629	314,446	5.5	118.1
24	250,762	311,119	△1.1	116.9
25	269,364	317,272	1.9	119.2
26	299,968	391,092	23.5	146.9
27	302,946	421,930	7.8	158.8
28	318,714	455,705	8.0	171.4
29	327,007	482,311	5.8	181.6

1920年代平均				10.4	
30	280,964	476,210	△1.1	178.9	
31	252,925	532,463	11.8	202.0	
32	310,837	658,538	23.6	247.7	
33	367,236	700,831	6.4	263.6	
34	438,402	825,615	17.8	310.6	
35	607,477	1,029,622	24.7	387.2	
36	730,807	1,167,412	13.3	438.7	
37	959,308	1,423,344	21.9	535.1	
38	1,140,118	1,461,076	2.7	549.2	
39	1,498,277	1,655,596	13.4	622.4	
1930年代平均				13.5	
40	1,646,606	1,601,325	△3.2	602.0	
43	2,050,000	1,694,444	10.0	633.2	

資料：朝鮮總督府 統計年報・大正 9年～昭和 11年版, 朝鮮經濟年報 昭和 16～17年版 및 1948年版에서 作成.

註：① 朝鮮銀行, 統計月報・大正 9年～昭和18年(1910年 7月基準으로 하는)의 京城物價指數(年平均値)로 修正.

② 1943年の 成長率은 1942年の 經常價格 1,863,000千圓에 對한 成長率 임.

〈第2表〉

工業의 比重推移

(經常價格)

年 度	全 產 業		工 業		B/A
	總生產額(A)	成長指數	生產額(B)	成長指數	
	(千圓)		(千圓)		%
1911	409,294	100.0	43,528	100.0	10.8
21	1,302,484	318.4	200,535	454.5	15.4
25	1,643,062	401.7	269,364	619.3	16.4
30	1,176,086	287.5	280,963	640.9	23.9
35	2,095,459	512.2	607,477	1,396.7	28.9
37	2,937,766	718.4	959,308	2,179.9	32.7
39	3,902,077	954.0	1,498,277	3,404.5	38.0
43	5,526,164	1,351.1	2,050,000	4,659.1	37.0

資料：朝鮮總督府 統計年報・大正 10年～昭和 11年版 및 朝鮮經濟年報・1948年版에서 作成.

그처럼 工業成長은 急「템포」로 進행되었다. 그러나 그 成長은 우리의 自主的인 工業成長이 되지는 못하였다. 말하자면 1920年代의 順調로운 成長은 당시에 이미 自國內에서 飽和 狀態에 달했던 日本의 資本力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로 輕工業部門의 成長이었고 1930年代의 빠른 工業成長은 대부분 軍需工業으로서의 重化學工業 金屬工業등의 급속한 발달에 基因하였던 것이다.

좀 더 詳論하면 解放前의 工業成長에 있어 그 推進力의 실질적 主體는 어디까지나 侵略的 收奪性을 지닌 日本의 資本과 技術이었고 따라서 生産收益의 配分은 거의 全的으로 日本에 歸屬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工業은 처음에는 아직 初期的 發展段階에 놓여 있

있던 日本의 資本主義를 成熟段階로 발전시키는데 寄與하였고 그 다음에는 成熟된 日帝의 戰爭遂行을 위하여 犧牲的으로 利用되었다고 할 것이다. 解放前에는 우리의 民族資本이 차지하는 比率이 극히 微小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土地資本이 있고 近代의인 工業部門에 投下된 産業資本은 例外的으로 存在하였음에 지나지 않았다는 事實은 工業의 自主의 發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立證하는 하나의 例이다. 여기에 本質的인 問題點이 介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또한 1920年代까지 日本資本의 韓國工業에 대한 投資가 대부분 電力, 食品纖維, 고무, 皮革, 製紙, 窯業 등 輕工業部門에 행해 짐으로써 韓國이 日本工業圈의 一環으로 커다란 役割을 擔當하였음에 대하여 1930年代에 들어서자 31년에는 滿洲事變, 32년에는 日軍의 上海攻擊, 37년에는 中日戰爭, 39년에는 마침내 太平洋戰爭이 勃發하여 45년까지 계속되는 동안에 韓國工業은 日本의 軍需物資를 生産하기 위하여 重化學工業 중심의 軍需工業體制로 構造的 轉換이 이루어졌다는 歷史的 事實으로서도 充分히 立證된다.

이렇듯 1920年代와 30年代를 통하여 解放直前に 이르기 까지 工業이 急速한 成長을 하는 過程에서 工業構造의 跛行性和 民族의 被收奪이라는 서글픈 現象을 보였지만 全體經濟의 工業化는 상당히 빨리 진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2) 工業構造의 內容

解放前의 工業構造는 한마디로 말하여 畸型的인 發達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合理的인 工業構造의 형성은 自主的인 工業政策의 추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日本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自國의 不足되는 食糧, 工業原料, 勞動力 등을 조달코자 注力하였다. 따라서 韓國을 農業國 내지 工業原料의 供給地로서 묶어두는 것이 植民地政策의 基本目標였다. 그 후 自國의 資本主義가 成熟됨에 따라 帝國主義的인 侵略戰爭을 遂行하기 위하여 大陸進出上 가장 有利한 立地條件에 있는 韓國을 兵站基地化하고 그 工業을 軍需工業體制로 轉換시켰으며 특히 工業資源과 電力이 豊富한 北韓에 軍需工業으로서의 重化學工業施設을 集中的으로 設備하였다. 이리하여 1931년의 滿洲事變으로 부터 1945년의 2次大戰이 終末되기 까지 우리나라 工業은 他律的인 軍需工業體制로 構造的 轉換이 이루어졌고 地域的으로는 南農北工이란 偏重된 工業圈을 形成하였던 것이다.

지금 日本의 大陸侵略과 2次大戰의 遂行을 前後하여 工業構造가 어떠한 動向을 보였는가를 表示하는 實證的 資料를 提示하면 다음의

〈第3表〉 工業構造의 動向 (單位: %)

區 分	年 度	1936	1939	1943
重 化 學 工 業		34	47	49
金 屬		5	9	14
機 械		2	4	6
化 學		27	34	29
輕 工 業		66	53	51
紡 織		14	13	17
製 材		1	1	6
印刷・出版		2	1	1
食 料 品		27	22	19
其 他		22	16	18

이와 같이 脆弱한 工業構造마저 北韓의 重化學

資料: 朝鮮經濟年報・1948年.

工業과 南韓의 輕工業이라는 地域의인 偏在로 인하여 1945年 解放과 더불어 工業構造는 南韓만이 더욱 畸型的인 것으로 變貌되고 말았다. 이러한 事實은 解放直前인 1940年에 있어서 南・北韓 工業生産額의 構成比를 보면 더욱 明白하게 나타난다. 지금 第4表를 보면 北韓은 化學工業이 全國의 82%, 鐵鋼을 포함한 金屬工業이 90%를 占하여 重化學工業部門에서 優位性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南韓에 있어서는 紡織, 印刷・出版, 製材, 食料品등 主로 輕工業部門에서 優位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解放을 契機로 國土가 南北으로 兩斷되자 南韓만의 工業構造는 生産財部門의 基盤이 없는 消費財 위주의 輕工業만의 跛行的인 工業構造로 轉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解放後 우리나라의 工業發展이란 전혀 새로운 바탕위에서 시발되어야 하였다.

〈第4表〉 南・北韓 業種別 工産額(1940年) (單位: 千圓)

區 分	南 韓	比 (%)	北 韓	比 (%)	計
化 學	91, 172	18	410, 578	82	501, 750
金 屬	13, 602	10	123, 490	90	137, 092
機 械	38, 406	72	14, 480	28	53, 226
紡 織	170, 986	85	30, 356	15	201, 342
窯 業	7, 966	21	31, 276	79	39, 242
製 材	13, 749	65	7, 312	35	21, 062
印刷・出版	17, 246	89	2, 127	11	19, 373
食 料 品	213, 628	65	114, 724	35	328, 352
電 氣	11, 097	36	19, 366	64	30, 463
其 他	127, 474	78	35, 794	22	163, 268
計	705, 326		789, 843		1, 495, 169

資料: 朝鮮經濟年報・1948年.

이리하여 日帝下의 우리나라 工業은 비록 높은 成長率을 達成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自主的인 成長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進正 國民經濟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工業構造에 있어서는 一部 輕工業이나 軍需工業 중심으로 特定業種만이 두드러지게 발달한 非正常的인 肥大症을 보이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1953~1966年

(1) 工業成長의 趨勢

第5表는 1953年~1966年에 걸쳐 G.N.P. 2次 産業 및 工業의 附加價値와 成長率 및 그 指數를 算出한 것이다. 그리고 第6表에 있어서는 工業部門의 業種別 附加價値의 實額을 검토한 것이다.

韓國戰線에 休戰이 成立되었던 1953년부터 66년까지의 14年間을 통하여 우리나라 工業成長은 뚜렷하였다. 즉 年平均 13.4%란 比較的 빠른 成長「렘포」를 보였으며 따라서 1966年에 와서는 成長指數가 505.4(1953=100)에 달함으로써 이 期間에 5배 以上の 成長을 實現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成長過程도 결코 平坦하지는 못하여 年平均 成長率이 때로는 5.4%에서 때로는 20.9%에 이르는 심한 屈曲을 그리고 있다. 한편 그와 같은 急速한 工業成長의 內容을 좀더 具體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第6表의 業種別 附加價値의 趨勢를 보면 14年間에 상당한 變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業種別의 生産額이 해를 거듭하는데 따

라 대체로 增加一路에 있었다. 그 중에서도 纖維, 食·飲料品, 化學製品, 土石 및 유리製品, 輸送用機器등의 業種이 두드러지게 增産된 것이 주목된다. 또한 肥料, 石油와 같은 重化學工業이 近年에 새로히 發達하고 있는 것은 特徵的이라고 할 것이다.

工業의 成長趨勢와 그 比較
(1960年 不變市場價格) (單位: 10億圓)

年 度	國 民 總 生 產			2 次 產 業			工 業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1953	172.10	—%	100.0	21.01	—%	100.0	13.83	—%	100.0
54	183.71	6.7	106.7	24.67	17.4	117.4	16.56	19.7	119.7
55	194.49	5.9	113.0	28.95	13.3	137.8	20.02	20.9	144.8
56	196.56	1.1	114.2	32.07	10.8	152.6	23.25	16.1	168.1
57	212.45	8.1	123.4	37.03	15.5	176.2	25.34	8.6	183.2
58	226.19	6.5	131.4	39.96	7.9	190.2	27.72	9.4	200.4
59	237.10	4.8	137.8	44.62	11.7	212.4	30.36	9.5	219.5
60	243.14	2.5	141.3	48.41	8.5	230.4	32.98	8.6	238.5
61	255.19	5.1	148.3	50.96	5.3	242.6	34.76	5.4	251.3
62	265.60	4.1	154.3	59.86	17.5	284.9	40.55	16.7	293.2
63	290.25	9.3	168.7	69.55	16.2	331.0	48.07	18.5	347.6
64	316.15	8.9	183.7	73.48	5.7	349.7	50.96	6.0	368.5
65	341.73	8.1	198.6	88.06	19.8	419.1	61.11	19.9	441.9
66	382.56	11.9	222.3	102.09	15.9	485.9	69.89	14.4	505.4
平 均		6.3	(2.2倍)		12.7	(4.8倍)		13.4	(5.0倍)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1966年 및 調査月報·1967年 1月號.

註: 1966年은 暫定推計.

그처럼 工業의 成長速度가 餘他產業의 그것 보다 훨씬 빨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全體經濟에서 차지하는 工業의 比重이 增大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만큼 全體經濟의 工業化가 實現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다음의 第7表를 보면 1953년에는 工業의 附加價值가 G.N.P. 가운데 차지하는 比重은 겨우 8.0%에 지나지 않았으나 1966년에는 18.3%로 增加하여 그동안 2배 이상의 工業化가 實現되었다. 그러나 同比率이 1960년의 경우 美國은 30%, 英國은 37%, 西獨은 45%, 日本은 30%, 그리고 伊太利가 32%등이 있음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工業化 過程의 胎動期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앞으로 第2次 5個年計劃이 成功的으로 遂行된 1970年代에 가서는 위의 先進國으로 相當히 接近하여 갈 것으로 推定된다.

물론 工業構成比의 上昇만으로써 名實相符한 工業化過程이 촉진되었다고 斷定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構造의 內部的 分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工業施設投資나 生産額이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原材料를 대부분 海外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所得의 海外流出이 不可避하므로 再檢討돼야 할 問題點이 생기게 된다. 나가서는 그 나라의 物的 人的 資源의 賦存狀態 및 其他 經濟의 與件에 비추어 工業化가 반드시 國民經濟 發展에 最善의 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모로 고려되어야 할 問題點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면서도 1953年 이후 특히 1962년부터 66년까지의 第1次 5個年計劃 期間中에 工業化가 현저하게 이루어졌고 構造의 高度化를 실현하였다고 할 것이다.

工業部門 附加

(1960年 不變)

〈第6表〉

業 種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食 料 品	1,344	1,828	2,234	2,972	3,185	3,634
(搗 精)	(1,197)	(1,365)	(1,315)	(1,182)	(1,316)	(1,454)
飲 料 品	1,208	979	1,908	2,311	2,046	2,300
煙 草	2,617	2,803	3,029	3,069	3,146	3,356
織 維	2,590	3,221	3,981	5,037	6,109	6,198
靴・衣類 및 裝身品	514	707	900	1,009	1,209	1,273
製材業 및 木製品	302	460	488	552	723	563
家具 및 裝置品	230	280	410	423	431	421
紙類 및 紙製品	199	272	302	280	273	511
印刷・出版 및 同類似業	536	628	752	777	732	920
皮革 및 皮革製品	221	280	347	454	451	511
고 무 製品	252	358	302	306	436	492
化學 및 化學製品	509	614	764	808	884	974
(肥 料)	(—)	(—)	(—)	(—)	(—)	(—)
石油 및 石炭製品	179	208	245	352	416	506
(石 油)	(—)	(—)	(—)	(—)	(—)	(—)
土石 및 유리製品	376	539	666	814	853	293
第 1 次 金 屬	105	146	164	259	375	416
金 屬 製品	277	338	376	377	449	493
機 械	449	569	620	751	661	823
電 氣 機 器	62	78	56	140	159	160
輸 送 用 機 器	318	385	538	630	676	631
(工 作 廠)	(82)	(150)	(165)	(192)	(259)	(267)
其 他 製 造 業	262	353	461	545	547	524
合 計	13,829	16,561	20,023	23,249	25,336	27,720

資料：韓國銀行。

註：① 1966年은 暫定推計。

② ()는 獨立項目임.

休戰以後 오늘에 이르기 까지 14年間に 걸쳐서 우리나라의 工業成長이 이처럼 빨랐다는 점에 있어 다음과 같은 事實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休戰直後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나라 經濟의 正常的인 發達過程에서 招來되는 現象이라기 보다는 獨逸이나 日本의 경우와 같이 戰災國이 戰後 復舊過程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急速한 工業成長과 同質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 工業의 成長速度가 더욱 加速되었던 것은 오늘날 大部分의 後進國이 그 工業化過程의 初期에 있어서 一般의으로 急速한 工業成長率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흡사한 現象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일찌기 美國의 「하바드」大學의 「저셴크론」(A. Gerschenkron)教授가 後進國의 工業化에 관한 所論에서 後進國은 이미 先進國이 實現해 놓은 工業化를 위한 여러가지 惠澤(技術, 資本등)을언제라도 利用할 수 있는 立場에 있기 때문에 過去에 先進國이 겪었던 것 보다도 工業化가빠르다고 指摘한 바와 一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價值 總括表

市場 價格)

(單位: 百萬元)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3,579	4,013	4,006	4,380	5,736	5,338	6,262	6,916
(1,532)	(1,490)	(1,676)	(1,493)	(1,427)	(1,873)	(1,854)	(2,175)
2,835	3,114	3,292	2,747	2,932	3,023	3,827	4,381
3,489	3,446	3,710	4,125	4,598	5,193	6,267	6,540
6,432	6,317	5,878	6,745	7,318	8,060	10,285	11,300
1,492	1,686	1,639	2,181	2,527	2,055	2,191	2,135
723	761	556	810	1,014	1,020	1,216	1,570
366	382	334	386	394	317	362	379
528	735	908	1,273	1,763	1,800	1,970	2,185
975	1,218	1,091	1,405	1,568	1,887	2,205	2,630
424	391	459	476	435	498	503	526
788	785	747	865	1,173	1,355	1,673	1,787
1,131	1,406	1,573	2,181	2,924	2,815	2,855	3,243
(—)	(92)	(444)	(558)	(671)	(969)	(1,120)	(1,169)
634	820	913	1,071	1,524	1,653	1,759	2,117
(—)	(—)	(—)	(—)	(—)	(575)	(1,218)	(1,521)
1,570	1,656	1,923	2,539	3,055	4,133	4,881	5,661
558	892	833	1,192	1,590	1,530	1,915	2,332
605	714	820	646	1,125	956	1,284	1,393
878	1,073	1,441	2,044	1,843	1,699	1,922	1,959
238	247	374	575	766	1,006	1,164	1,812
623	756	934	1,161	1,795	1,797	2,764	3,504
(282)	(280)	(433)	(415)	(667)	(249)	(592)	(1,263)
674	707	755	984	1,219	2,157	1,023	1,331
30,356	32,981	34,759	40,552	48,066	50,958	61,112	69,889

總量的인 工業成長率은 상당히 빠르기는 하였지만 그 實質的인 成長過程을 좀 더 자세히 檢討해 보면 年度에 따라서 起伏이 심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休戰直後에 急速히 成長하기 시작하였던 消費財工業은 점차 成長速度가 鈍化되어온 反面에 生産財工業의 成長은 1950年代에는 한 동안 停滯되었다가 60年代에 들어서자 第1次 5個年計劃의 始發과 함께 활기를 띄게 됨으로써 오늘날 까지 順調로운 成長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注目할만 하다.

第8表를 보면 消費財工業은 休戰以後 계속 그 成長速度가 減少하여 1953~66年間に 年平均 10.2%의 成長率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生産財工業은 같은 期間에 年平均 成長率이 17.9%에 달하여 11배 이상의 成長을 實現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生産財工業의 이와 같은 急速한 成長에도 불구하고 工業全體의 成長率趨勢가 주로 消費財工業의 그것과 거의 같은 步調를 취하고 있는 理由는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生産財工業 보다는 壓倒的으로 크기 때문이

工業의 比重推移

〈第7表〉

(1960年 不變市場價格) (單位: 億圓)

年 度	國 民 總 生 產		2 次 產 業		工 業	
	附加價值	構 成 比	附加價值	構 成 比	附加價值	構 成 比
		%		%		%
1953	172.10	100.0	21.01	12.1	13.83	8.0
54	183.71	100.0	24.67	13.4	16.56	9.0
55	194.49	100.0	28.95	14.8	20.02	10.3
56	196.56	100.0	32.07	16.2	23.25	11.8
57	212.45	100.0	37.03	17.3	25.34	11.9
58	226.19	100.0	39.96	17.6	27.72	12.3
59	237.10	100.0	44.62	18.7	30.36	12.8
60	243.14	100.0	48.41	19.8	32.98	13.6
61	255.19	100.0	50.96	19.8	34.76	13.6
62	265.60	100.0	59.86	22.4	40.55	15.3
63	290.25	100.0	69.55	23.8	48.07	16.6
64	316.15	100.0	73.48	23.1	50.96	16.1
65	341.73	100.0	88.06	25.0	61.11	17.9
66	382.56	100.0	102.09	26.8	69.89	18.3

資料: 前掲表과 같음.

註: 前掲表과 같음.

〈第8表〉

工業部門別 成長趨勢

(單位: 附加價值: 百萬圓)
(成長率: %)

年 度	全 工 業			消 費 財 工 業			生 產 財 工 業			其 他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附加價值	成長率	指 數
1953	13,829	—%	100.0	11,210	—%	100.0	2,357	—%	100.0	262	—%	100
54	16,561	19.7	119.7	13,181	17.6	117.6	3,027	28.4	128.4	353	34.7	134.7
55	20,023	20.9	144.8	15,968	21.1	142.4	3,594	18.3	152.5	461	30.6	176.0
56	23,249	16.1	168.1	18,372	15.1	163.9	4,323	20.3	183.4	545	18.2	208.0
57	25,336	8.6	183.2	20,057	9.2	178.9	4,732	9.5	200.8	547	0.4	208.8
58	27,720	9.4	200.4	21,633	7.9	193.0	5,563	17.6	236.0	524	△4.2	200.0
59	30,356	9.5	219.5	23,163	7.1	206.6	6,519	14.9	276.6	674	28.6	257.3
60	32,981	8.6	238.5	24,338	5.1	217.1	7,936	9.8	336.7	707	4.9	269.8
61	34,759	5.4	251.3	24,296	0.2	216.7	9,688	22.1	411.0	775	9.6	295.8
62	40,552	16.7	293.2	26,886	10.7	239.8	12,682	30.9	538.1	984	27.0	375.6
63	48,066	18.5	347.6	30,886	14.9	275.5	15,960	25.8	677.1	1,219	23.9	465.3
64	50,958	6.0	368.5	32,419	5.0	289.2	17,382	8.9	737.5	1,157	△5.1	441.6
65	61,112	19.9	441.9	38,615	19.1	344.5	21,474	23.5	911.1	1,023	△11.6	390.5
66	69,889	14.4	505.4	42,524	10.1	379.3	25,974	21.0	1,101.9	1,331	30.1	508.0
平 均		13.4			10.2			17.9			13.4	

資料: 第5表과 第6表에서 作成.

註: 消費財 工業에는 前掲의 第6表에서 食料品~ 고무製品까지 그리고 生産財 工業에는 化學~ 輸送用機器 까지를 包含함.

다. 그리하여 工業全體의 成長率도 消費財工業의 그것에 의하여 左右되어 왔던 것이다. 회고컨대 6·25動亂 直後 不足한 生活消費用品의 供給을 위하여 纖維와 食品을 中心으로 하는 消費財工業이 雨後竹筍格으로 번창하다가 그 후 生活의 安定 및 經濟秩序의 回復과 더불어 이들 消費用品에 대한 需要의 誘發要因이 漸減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 消費財工業은 그 原料와 生産手段의 大部分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었기 때문에 物價, 外換事情, 貿易政策等에 의하여 그때마다 심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 自體가 國內에서 安定的 成長基調를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工業의 大宗을 이루어온 消費財工業은 從來와는 反對로 차츰 成長의 停滯를 보였고 그에 따라 工業全體의 成長도 從來의 높은 水準으로 부터 鈍化되어 왔던 것이다.

(2) 工業構造의 變化

休戰의 成立으로 3年間に 걸친 戰火가 그치게 되자 外國으로부터 復興援助가 本格的으로 시작 되었고 이를 뒷받침으로 하여 産業復舊政策이 強力히 실시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復舊政策은 戰後 긴급한 生活消費用品의 供給을 充足하고자 비교적 生産의 迂回度가 낮고 資本의 回轉率이 높은 食品과 纖維를 비롯한 日常用品의 生産部門에 置重하였으며 그 結果 消費財工業部門의 成長이 특히 현저하였던 것이다. 當時에 있어서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과의 比重을 보면 第9表와 같이 약 4:1로서 消費財工業이 壓倒의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工業構造의 脆弱性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兩者의 比重關係는 그 후 數年間 거의 큰 變化없이 1950年代를 一貫하였다. 그러다가 第1次 5個年計劃의 實施과 더불어 工業構造의 점차적인 改編이 이룩되어 同計劃의 目標年度였던 1966년에 있어서는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의 比重은 약 3:2로 많은 改善을 보였다. 이리하여 지난 14年間に 있어서 우리나라의 工業構造는 일단 先進國型으로 상당한 高度化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第9表〉

工業構造의 變化

(單位: %)

年 度	全 工 業	消費財工業	生産財工業	其他製造業
1 9 5 3	100.0	81.1	17.0	1.9
5 4	100.0	79.6	18.3	2.1
5 5	100.0	79.7	17.9	2.4
5 6	100.0	79.0	18.6	2.1
5 7	100.0	79.2	18.7	2.1
5 8	100.0	78.0	20.1	1.9
5 9	100.0	76.3	21.5	2.2
6 0	100.0	73.8	24.1	2.1
6 1	100.0	69.9	27.9	2.2
6 2	100.0	66.3	31.3	2.4
6 3	100.0	64.3	33.2	2.5
6 4	100.0	63.6	34.1	2.3
6 5	100.0	63.2	35.1	1.7
6 6	100.0	60.8	37.2	2.0

資料: 第8表에서 作成.

그 동안 工業構造의 變動內容을 더욱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第10表를 作成하였다. 이 表의 內容을 검토해 보면 消費財工業에 속하는 業種은 거의 全部가 1953년에 비하여 1966년에 와서는 比重이 크게 減少하였고 반대로 生産財工業에 속하는 業種은 거의 全部가 相當한

比重的 增加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지난 10數年間 우리나라의 工業構造는 生産財工業을 中心으로 많은 改編을 이룩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1966年 現在 附加價値의 比重에서 보면 우리나라 工業의 主軸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食料品, 飲料品, 煙草, 纖維, 化學, 石油 및 石炭, 土石 및 유리, 輸送用機器 등 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食料品(13.0%), 煙草(9.4%), 纖維(16.2%) 및 飲料品(6.3%)등 4大業種이 工業全體附加價値額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工業構造가 얼마나 脆弱한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第10表〉

工業部門別의 構造變動

(單位: 百萬元)

業 種	1 9 5 3		1 9 6 6		(B-A)
	附加價値	構成比(A)	附加價値	構成比(B)	
消費財工業部門	11,210	81.1%	42,524	60.9%	-20.2%
食 料 品	2,541	18.4	9,091	13.0	-5.4
飲 料 品	1,208	8.7	4,381	6.3	-2.4
煙 草	2,617	18.9	6,540	9.4	-9.5
纖 維	2,590	18.7	11,300	16.2	-2.5
靴衣類 및 裝身品	514	3.7	2,135	3.1	-0.6
製材 및 木製品	302	2.2	1,570	2.2	0
家具 및 裝置品	230	1.7	379	0.5	-1.2
紙類 및 紙製品	199	1.4	2,185	3.1	1.7
印刷 · 出版	536	3.9	2,630	3.8	-1
皮 革	221	1.6	526	0.8	-0.8
고 무	252	1.8	1,787	2.6	0.8
生産財工業部門	2,357	17.0	25,974	37.2	20.2
化 學	509	3.7	4,412	6.3	2.6
石油 및 石炭	179	1.3	3,638	5.2	3.9
土石 및 유리	376	2.7	5,661	8.1	5.4
第1次金屬	105	0.8	2,331	3.3	2.5
金屬製品	277	2.0	1,393	2.0	0
機 械	449	3.2	1,959	2.8	-0.4
電 氣 機 器	62	0.4	1,812	2.6	2.2
輸 送 用 機 器	400	2.9	4,767	6.8	3.9
其 他	262	1.9	1,331	1.9	0
計	13,829	100.0	69,889	100.0	

資料: 第8表에서 作成.

1966年의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의 比重이 약 6:4인데 이를 日帝下의 比率과 對比하여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工業構造는 1930年 前後의 그것과 대체로 흡사한 構造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와 같은 급일의 構造의 比率을 國際的으로 비교하면 美國, 英國, 西獨, 日本등 主要先進諸國은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의 比重이 대략 20:60 즉 1:3으로서 生産財工業이 壓倒的으로 優位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第1次 5個年計劃이 成功的으로 終了된 1966年에 있어서도 消費財工業이 훨씬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工業發展에 있어 아직도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工業化過程의 촉진은 앞으로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위에서 보아 온 우리나라 工業의 成長과 構造에 관하여 解放前과 解放後를 하나의 表로서 比較하면 第11表 및 第12表와 같다. 여기에서 지난 近半 世紀에 걸친 工業의 成長率과 構造上 比率의 推移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比較는 價格基準이나 經濟與件이 同一하지 않고 더욱이 解放前은 南·北韓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一律의으로 較量하여 論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이와 같은 長期的 分析은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

여기에서 解放前·後를 比較할 때 年平均 成長率은 解放前이 11.2%이고 解放後가 13.4%로서 1953年 이후의 工業成長率이 多少 높지만 年度別로 보면 解放前에 오히려 월등히 높은 해가 많았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工業의 構成比에 있어서는 解放前은 解放後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높은 比率이 었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것 처럼 解放前은 우리의 自主性을 잃은 收奪의인 工業發展을 면치 못하였으므로 價値判斷의 基準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計數上으로 觀察할 때 그 현격한 差異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工業化의 前途는 遼遠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第11表〉 韓國工業의 成長率 推移 (單位: %)

解 放 前		解 放 後	
年度	成長率	年度	成長率
1921	30.1	1953	—
22	11.9	54	19.7
23	5.5	55	20.9
24	△1.1	56	16.1
25	1.9	57	8.6
26	23.5	58	9.4
27	7.8	59	9.5
28	8.0	60	8.6
29	5.8	61	5.4
30	△1.1	62	16.7
31	11.8	63	18.5
32	23.6	64	6.0
33	6.4	65	19.9
34	17.8	66	14.4
35	24.7		
36	13.3		
37	21.9		
38	2.7		
39	13.4		
40	△3.2		
43	10.0		
平均	11.2		13.4

資料: 第1表 및 第5表에서 作成.

〈第12表〉 韓國工業의 比重推移 (單位: %)

解 放 前			解 放 後		
年 度	全産業	工 業	年 度	全産業	工 業
1911	100.0	10.8	1953	100.0	8.0
21	100.0	15.4	54	100.0	9.0
25	100.0	16.4	55	100.0	10.3
30	100.0	23.9	56	100.0	11.8
35	100.0	28.9	57	100.0	11.9
37	100.0	32.7	58	100.0	12.3
39	100.0	38.9	59	100.0	12.8
43	100.0	37.0	60	100.0	13.6
			61	100.0	13.6
			62	100.0	15.3
			63	100.0	16.6
			64	100.0	16.1
			65	100.0	17.9
			66	100.0	18.3

資料: 第2表 및 第7表에서 作成.

II. 工業化 過程

1. 工業化의 進展

一般的으로 成長概念과 發展概念은 區分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工業化란 工業의 成長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工業部門間에 있어서의 體系化 다시 말하자면 工業發展의 內容이 아

올려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附加價值 중심의 考察도 필요한 동시에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 또는 重工業과 輕工業의 比重을 對比하는 考論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66년에 이르는 14年間に 있어서 年平均 成長率이 國民經濟 全體로서는 6.3%이고 工業은 13.4%였다. 또 成長指數는 1953年을 基準(=100)으로 하였을 때 66년에 와서는 全體經濟가 222.3, 工業은 505.4로 각각 增大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全體經濟보다도 工業의 成長이 훨씬 빨랐던 것인데 그 結果 工業化의 進展도 상당히 빠른 速度로 進行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韓國經濟의 工業化進展度 내지 進展率을 보면 다음 第13表와 같이 基準時點인 1953年을 100.0으로 하였을 때 그로부터 14年後인 1966年 現在 227.4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經濟는 約 2.3倍의 實質的인 工業化 發展이 實現되었다고 할 수 있다.

〈第13表〉

韓國經濟의 工業化 進展度

(單位: %)

	經濟成長指數(A)	工業成長指數(B)	工業化進展度(B/A)
1 9 5 3	100.0	100.0	100.0
5 4	106.7	119.7	112.2
5 5	113.0	144.8	128.1
5 6	114.2	168.1	147.2
5 7	123.4	183.2	148.5
5 8	131.4	200.4	152.5
5 9	137.8	219.5	159.3
6 0	141.3	238.5	168.8
6 1	148.3	251.3	169.5
6 2	154.3	293.2	190.0
6 3	168.7	347.6	206.0
6 4	183.7	368.5	200.6
6 5	198.6	441.9	222.5
6 6	222.3	505.4	227.4

資料: 第5表에서 作成.

우리나라 經濟가 지난 14年間に 約 2.3倍의 工業化進展이 實現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消費財工業化로 더욱 進展되었는가, 아니면 生産財工業化로 더욱 많이 進展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生産財工業의 成長이 그나라의 工業構造 나아가서는 全體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이룩하는 正道라고 보겠는데 만약에 工業進展이 주로 消費財工業의 發達과 그 比重의 増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內容은 批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分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53~66年間に 있어서 年平均 成長率이 消費財工業은 10.2%였지만 生産財工業은 17.9%로서 前者보다 後者が 거의 2배에 가까운 빠른 成長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成長指數도 基準年度(1953年=100)에 比하여 66년에는 消費財工業이 379.3으로서 약 3.8倍의 成長을 했음에 대하여 生産財工業은 1,101.9로서 無慮 11倍以上의 成長實績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나라 經濟는 生産財工業化로 더욱 많은 進展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第14表에서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보면 1953~66年間に 있어서 經濟의 消費財工業化는 約 1.7倍로 進展되었음에 대하여 生産財工業化에로의 進展은 거의 5배 가까이 이루어졌으므로 韓國經濟는 지난 14年間に 있어서 消費財工業 보다도 生産財工業 中心의 工業化가 약 3배나

큰 實現을 보았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이러한 生産財工業化의 進展趨勢는 1950年代에는 比較的 緩慢한 上昇을 보였지만 産業體制의 再整備과 生産財工業 중심으로 工業構造의 改編을 서두른 第1次 5個年計劃의 實施과 함께 從來 보다도 더욱 빠른 上昇趨勢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第14表〉

部門別의 工業化 進展度

年 度	區 分	全 工 業	消 費 財 工 業	生 産 財 工 業
1 9 5 3		100.0	100.0	100.0
5 4		112.2	110.2	120.3
5 5		128.1	126.0	135.0
5 6		147.2	132.0	160.6
5 7		148.5	145.0	162.7
5 8		152.5	146.9	179.6
5 9		159.3	149.9	200.7
6 0		168.8	153.6	238.3
6 1		169.5	146.1	277.1
6 2		190.0	155.4	348.7
6 3		206.0	163.3	401.4
6 4		200.6	157.4	401.5
6 5		222.5	173.5	458.8
6 6		227.4	170.6	495.7

資料：第8表에서 作成.

2. 工業化의 段階

獨逸의 「호프만」(W. Hoffmann) 教授의 著, 「工業化의 段階와 類型」(Stadien und Typen der Industrialisierung, 1931)에 의하면 各國의 工業化段階는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의 構成比를 기준으로 하여 3段階로 나누어진다. 1)

우리나라의 그와 같은 工業化段階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서 第15表 및 第16表를 보기로 한다. 第15表는 「호프만」方式으로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의 附加價值 比率을 1953~66

- 1) ① 그에 의하면 國民經濟의 工業化發展에는 3가지의 段階가 있다고 한다. 이 3段階는 純生産額面에서 본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의 比重에 따라 區分되는데 지금 이를 「호프만」의 比率로써 表示하면 生産財工業을 1로 하였을 때 工業化의 第1段階는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5±1로서 生産財工業이 극히 未達한 狀態에 있고 消費財工業이 壓倒的인 優位를 차지하는 段階이다. 第2段階는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2±1/2로서 生産財工業의 比重이 아직 低位에 있기는 하나 그것이 消費財工業 보다도 상당히 빠른 速度로 成長하고 있는 段階이며 第3段階는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1±1/2로서 消費財工業에 비하여 生産財工業이 훨씬 크게 成長함으로써 兩者가 均衡되거나 혹은 生産財工業의 比重이 더욱 무거운 段階이다.

그와 같은 尺度에 따라 「호프만」은 世界各國의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의 比率을 對照 檢討하여 各 國民經濟의 工業化程度를 量的으로 測定하고 그 發展段階를 規定하였던 것이다. 그의 測定結果에 의하면 1920年代에 있어서 第1段階에 속하는 나라로서는 「브라질」 「칠리」 「印度」 「뉴질랜드」가 있다고 한다. 第2段階에 속한 나라서는 日本 「홀랜드」, 「카나다」, 「濠洲」, 「덴마크」, 「헝가리」, 南阿聯邦등인데 그 중에서 「홀랜드」, 「덴마크」, 「카나다」는 19~20世紀頃에 이 段階에 들어 갔고 濠洲, 南阿聯邦, 日本은 第1次大戰 直前に 들어 갔다고 한다. 그리고 第3段階에 속하는 나라는 英國, 佛蘭西, 「스위스」, 獨逸, 「벨기」, 「스웨덴」, 美國 等인데 「스웨덴」을 除外하고는 모두 20世紀初부터 이 段階에 到達하였다는 것이다.

- ② 英國, 「벨기」는 1950年頃, 佛蘭西는 1860年代, 日本은 1900年頃에 第1段階에 있었으며 그리고 獨逸, 「스위스」 佛蘭西는 1890年代, 美國은 1850年頃에 第2段階에 들어 갔다고 한다.

年間に 걸쳐서 算出 表示한 것이다. 1)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休戰 直後부터 한동안 上昇하여 1950年代末에는 生産財工業의 4배에 까지 달하였다가 60年代에 접어들면서 부터 生産財工業의 比重이 漸増하고 消費財工業이 相對的으로 低落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消費財工業의 生産物에 대한 需要要因의 増減變動에 基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消費財工業의 過剩肥大와 生産財工業의 低位로 말미암아 韓國工業은 「호프만」의 工業化段階 法則에서 보면 1961年에서 부터 겨우 工業化의 第2段階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50年代를 거쳐 6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生産財工業보다도 3倍以上의 높은 水準을 維持하였으므로 1960년까지는 消費財工業이 支配的이고 生産財工業이 현저히 未發達한 狀態에 있는 工業化의 第1段階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1961年 부터 工業化의 第2段階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産業構造의 再整備 특히 第1次 5個年計劃 期間中에 이 段階를 通過하여 이 計劃의 目標年度인 1966년에 와서는 벌써 工業化의 第3段階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工業化 發展段階는 1961年 당시 1920年代의 日本의 그것과 같은 水準이며 오늘날에는 1920年代의 英國과 佛蘭西의 工業化段階와 맞먹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호프만」의 分類方式과는 달리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의 一般的인 分類方式에 의하여 우리나라 經濟의 工業化段階를 表示한 것이 第16表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經濟는 이미 1961년에 工業化의 第2段階에 突入하여 1966년에는 이 過程을 거의 벗어나 工業化의 第3段階로 접어드는 문턱에 다달았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韓國經濟가 과연 「호프만」이 말하는 工業化의 第1段階 즉 先進國圈內에 進入하였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餘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生産財工業에는 사실은 最終消費者用品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比重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推定되므로 순수한 生産財만을 간주려 본다면 위의 結果는 훨씬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生産財工業으로 分類된 化學工業에는 肥料・醫藥品・化粧品・비누 등이, 各種 機器製造業에서도 最終消費用品이 각각 큰 比重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아직 工業發展의 基調가 低位에 있을 뿐더러 工業全般의 規模(Scale)가 적기 때문에 어떤 部門에 큰 工場이 한 두개만 設立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全體 工業構造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는 要因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立脚하여 본다면 우리나라가 현재 工業化의 第3段階에 進入하였다는 것과 先進工業國이 이 段階에 處해 있다는 것과는 性質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解釋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편에서 보면 「호프만」의 理論自體가 어느 나라의 경우나 들어 맞을 수 있는 共通의 尺度로서는 不充分하다는 하나의 理由가 될 것이다. 어쨌든 現단계로서 우리나라는 工業化의 第2段階까지 와있는 것이라고 斷定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호프만」의 法則은 有力한 根據에 立脚한 많은 批判을 받고 있다. 가령 工業化段階를 區分함에 使用되는 具體的 比率(消費財工業 對 生産財工業)을 算定하기 위하여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의 定義를 내림에 있어서 그는 最終生産物뿐만 아니라 여기에 中間生産物도 包含하고 生産物이 窮極的으로는 消費로 向하는가 또는 投資로 向하는가에 따라서 分類한다고 하는 基準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個個産業의 生産物中 75% 이상이 消費財 또

1) 「호프만」은 工業全體를 우선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으로 分類하고 生産財工業에는 機械・金屬・車輛 船舶・化學등의 工業을 包含시켰고 消費財工業에는 食品・纖維・皮革・家具 등의 工業을 包含시켰다.

〈第15表〉 우리나라의 工業化段階(Ⅰ)

年 度	消費財工業 (A)	生産財工業 (B)	$\frac{A}{B}$	
1953	6,790	1,802	3.7	$4 - \frac{3}{10}$
1954	7,953	2,280	3.5	$4 - \frac{5}{10}$
1955	10,195	2,683	3.8	$4 - \frac{4}{5}$
1956	12,379	3,157	3.9	$4 - \frac{1}{10}$
1957	13,538	3,463	3.9	$4 - \frac{1}{10}$
1958	14,518	3,764	3.9	$4 - \frac{1}{10}$
1959	15,168	4,315	3.5	$4 - \frac{1}{2}$
1960	15,707	5,460	2.9	$3 - \frac{1}{10}$
1961	15,645	6,852	2.3	$2 + \frac{3}{10}$
1962	16,227	9,072	1.8	$2 - \frac{1}{5}$
1963	18,243	11,381	1.6	$2 - \frac{2}{5}$
1964	19,109	11,021	1.7	$2 - \frac{3}{10}$
1965	23,093	13,616	1.7	$2 - \frac{3}{10}$
1966	25,677	16,675	1.5	$1 + \frac{1}{2}$

資料：第8表에서 作成.

註：工業分類는「호프만」의 方式에 의거하였음.
 즉 消費財工業=食料品, 飲料品, 纖維, 家具皮革,
 生産財工業=化學, 第1次金屬, 金屬製品
 機械, 電氣機器, 輸送機器.

〈第16表〉 우리나라의 工業化段階(Ⅱ)

年 度	消費財工業 (A)	生産財工業 (B)	$\frac{A}{B}$	
1953	11,210	2,357	4.8	$4 + \frac{4}{5}$
1954	13,181	3,027	4.4	$4 + \frac{2}{5}$
1955	15,968	3,594	4.4	$4 + \frac{2}{5}$
1956	18,372	4,323	4.2	$4 + \frac{1}{5}$
1957	20,057	4,732	4.2	$4 + \frac{1}{5}$
1958	21,633	5,563	3.9	$4 - \frac{1}{10}$
1959	23,163	6,519	3.6	$4 - \frac{2}{5}$
1960	24,338	7,936	3.1	$3 + \frac{1}{10}$
1961	24,296	9,688	2.5	$2 + \frac{1}{2}$
1962	26,886	12,682	2.1	$2 + \frac{1}{10}$
1963	30,886	15,960	1.9	$2 - \frac{1}{10}$
1964	32,419	17,382	1.9	$2 - \frac{1}{10}$
1965	38,615	21,474	1.8	$2 - \frac{1}{5}$
1966	42,524	25,974	1.6	$2 - \frac{2}{5}$

資料：第8表에서 作成.

註：消費財工業=食料品, 飲料品, 煙草, 纖維, 靴衣·裝身品, 製材 및 木製品, 家具, 紙類, 印刷, 皮革, 고무.
 生産財工業=化學, 石油 및 石炭, 土石 및 유리, 第1次 金屬, 金屬製品, 機械, 電氣機器, 輸送機器.

는 生産財로 된다고 判定되면 그 産業을 消費財工業 또는 生産財工業이라고 하였다. 그 結果 그의 産業分類에서는 消費財工業에는 食品, 纖維, 家具皮革, 의 各 業種만을 包含하고 生

産財工業은 金屬, 機械, 車輛 및 船舶, 化學등의 業種만에 局限시키고 있다. 즉 위의 75% 基準을 滿足시키지 못하는 고무, 製材, 紙類, 印刷를 비롯한 몇몇의 중요한 業種이 그의 分析에서는 전혀 除外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法則은 工業全般을 包括한 分析에서 誘發된 것이 아니므로 그 妥當性도 完璧을 기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的 缺陷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世界 各國經濟의 工業化段階를 測定할 수 있는 共通의 尺度로서 많이 使用되고 있는 것이 現實이라 하겠다.



創 立 15 周 年

서 울 대 학 교

貿 易 研 究 所

所 長 黃 炳 暖

電 話 92—2705~8

서울特別市 城北區 鍾岩洞 19

〈Summary〉

An Analysis of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by

Byung-June Whang

(Prof. of Economics,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

1. The Process of Growth of Korean Industry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ook place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from 1920 onwards the industry of Korea began to show rapid growth. In the 1930's there was further accel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y. Table 1 shows that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was 10.4 percent for the 1920's and 13.5 percent for the 1930's.

It should be noted at this point, however, that (1) Japanese capital was the main driving force behind the rapid growth, and that (2) such growth was the natural outcome of the contributions which Korean industry had made towards the maturing of Japanese capitalism in the first place, every advantage being taken of it subsequently by matured Japanese capitalism in order to carry the war.

When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came in 1945, the decline of Korean industry was inevitable because of such factors as the deformed industrial structure left behind by the Japanese, the decline of wartime prosperity, and the division of the country into two parts. To make matters even worse, the three-year Korean War which broke out in 1950 destroyed 42 percent of the meager industrial facilities. Therefore, after the War, Korean industry had to start again and establish a new foundation for its development.

Thanks to foreign aid and the Government's active rehabilitation policy, however, the industrial growth of Korea was relatively rapid after the truce of 1953. As shows in Table 5,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Korean industry in the period 1953—1966 was 13.4 percent, and the growth index reached 505.4 in 1966 as compared with 100 in 1960. The consumer goods industry grew 10.2 percent and the capital goods industry 17.9 percent on the yearly average. In the first period following the truce, the necessity of meeting the urgent demand for consumer goods was so great that the consumer goods industry grew remarkably; however, from about 1960, there was an sudden increase in the demand for capital goods; this was due to the putting into

operation of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it naturally resulted in the notable growth of the capital goods industry.

In connection with the rapid growth of Korean industr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facts: (1) the industry has had to depend to a great extent on imports as well as on foreign aid; (2) the rapid industrial growth is not something unique to Korea but is rather a general phenomenon that can be observed either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of any country which has been devastated by war, or in the initial stages of the industrial characterized by violent fluctuations.

2. The Change and Weaknes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o find out the reasons why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has shown traces of deformity,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to the period before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in 1945. Until the 1920's, industry in Korea had been developed with the emphasis on light industry with the backing of Japanese capital. In and after the 1930's, during which Japanese capitalism reached maturity, heavy chemical industry as part of the munitions industry was given priority, thus marking a new structural change in the industrial picture.

As there is no statistical data for the period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and during the Korean War, we have to look at the years following the armistice of 1953. As mentioned previously, owing to the serious shortage of consumer goods after the war, the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nsumer goods industry was the first steps taken. As a result, however, the industry grew to excess shown in Table 9 and through the 1950's, the consumer goods industry was about 80 and the capital goods industry about 20 in weight. With the execution of the first five-year plan,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goods industry went ahead so well from the beginning of the 1960's to the extent that, in 1964, the industrial structure showed about 40 for it against 60 for the consumer goods industry.

However the fact that the basic industries are not well developed while the consumer goods industry still prevails indicates the structural backwardness of Korean industry. Of the total industrial output as of the end of 1966, for example, the consumer goods industry accounted for 60.8 percent against 37.2 percent for the capital goods industry; in particular, the output of foodstuffs, cigarettes, and fiber alone was 44.9 percent (See Table 10). As of the end of 1966, most of the total manufacturing firms were small and medium sized industries having less than 200 employees, and rest of them were organized on the pattern of corporate firms and large scale industries. All this shows

concretely the weakness of Korea's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limited production scale.

3. The Degree of Progress Toward and Stages of Industrialization

With 1960 at 100.0, the growth index in 1966 was 222.3 for the whole economy, but for industry the figure had increased to 505.4 which meant that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whole economy had progressed at a considerably high rate. Particularly notable was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capital goods industry as shows in Table 13 and Table 14.

Since, until the end of the 1950's, the consumer goods industry was much greater in weight, Korea as shown in Table 15 and Table 16 was at the first stage of industrializ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prof. W. Hoffman. With the execution of the first-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t the beginning of the 1960's, the capital goods industry developed markedly, and Korea entered the second stage of industrialization from 1962. Furthermore, she is getting in the third stage of industrialization from 1966.



韓 國 研 究 院

院 長 千 文 岩

電 話 73-4533 · 4635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忠正路 1가 90-1

Korean Research Center

Director: Mun-Am Chon.

90-1, 1-Ga. Chung-Jung-Ro. Suh-Dea-Mun-Gu. Seoul, Korea
